

그러나 그가 [파스칼이] 개인적으로 유약하기 때문에 절망 내지는 환멸을 느낀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런 느낌은 지성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필수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의 절망이나 환멸은 개인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빠스칼과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순간들은 가뭄이나 캄캄한 밤에 비유될 수 있으며, 이는 기독교 신비주의자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성격상으로 병든 자이거나, 영혼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절망감을 경험하게 될 때는 가장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그러나 절망은 믿음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데 필요한 서곡(序曲)인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His [Pascal's] despair and his disillusion are, however, no illustration of personal weakness; they are perfectly objective, because they are essential moments in the progress of the intellectual soul; and for the type of Pascal they are the analogue of the drought, the dark night, which is an essential stage in the progress of the Christian mystic. A similar despair, when it is arrived at by a diseased character or an impure soul, may issue in the most disastrous consequences... but it was also a despair which was a necessary prelude to, and element in, the joy of faith. (SE, 412)

같은 논문의 끝을 Eliot는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삶과 고통의 무질서함과 허무와 무의미를, 그리고 신비를 의심은 하지만 또한 이를 생각할만한 지성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이를 느낄만한 감성이 있어서, 온 몸으로 느껴지는 만족으로만 평화를 느끼는 이들에게 훌륭한 기독교 문필가를 권하라고 한다면, 나는 빠스칼 말고는 어떤 다른 사람도 생각해 낼 수 없다.

But I can think of no Christian writer... more to be commended than Pascal to those who doubt, but who have the mind to conceive, and the sensibility to feel, the disorder, the futility, the meaninglessness, the mystery of life and suffering, and who can only find peace through a satisfaction of the whole being. (SE, 416)

그러면 구체적으로 빠스칼의 어떤 면이 Eliot를 매혹시켰는가? 빠스칼의 성격을 Eliot는 단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빠스칼은 금욕주의자들 중에서는 세상 일에 능한 사람이었으며, 세상 일에 능한 사람들 틈에서는 금욕주의자였다. 그는 세상사에 대해서 잘 알았고 또한 금욕에 대해서도 열성을 가졌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그에게서 하나의 [새로운] 통합을 이룬 것이다.

Pascal is a man of the world among ascetics, and an ascetic among men of the world; he had the knowledge of worldliness and the passion of asceticism, and in him the two are fused into an individual whole. (SE, 411)

빠스칼에 대한 Eliot의 이와같은 언급은, 곧 그 자신에 대한 언급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Eliot는 지금까지 그의 <전통>에 대한 이론이나 또는 <감수성>에 대한 이론 등을 통하여, 유럽의 전통을 현재에 공존하는 여러 요소의 합으로 보려고 하였다. 시간에 대한 그의 신비주의적인 경향은 위에서 본 바와같은 그의 <전통>에 관한 이론에 나타난다. 그러나, 그

가 지금껏 이성적으로 합리화시켰던 <이질적인 요소의 현재에서의 공존>이라는 그의 <절통>관이 <성회 수요일>에서는 여지없이 깨어짐을 본다. 더구나 그가 <객관적 상관물>에서 시도한 <시간>의 <시각(공간)화>는 <성회 수요일>의 절망의 시간에서는 산산히 부서진 의미 없는 망상일 뿐이다.

시간은 언제나 시간, 공간은 언제나  
그리고 단지 공간일 뿐임을 나는 알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은 다만 한 때만 현실적이고  
그리고 다만 한 장소에서만 현실적임을 나는 알기에  
나는 사물이 있는 그대로임을 기뻐하고  
그 축복받은 얼굴을 거절한다

Because I know that time is always time  
And place is always and only place  
And what is actual is actual only for one time  
And only for one place  
I rejoice that things are as they are and  
I renounce the blessed face (CPP, 89)

이같이 시간과 공간이 서로 따로 따로 떨어져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처지에 기뻐한다는 것은 오히려 절망에서 나온 자포자기적인 기쁨일 것이다.

그러나 아주 깊은 절망은 큰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마치 깊은 강에 빠져서 강 바닥에 닿으면, 힘차게 강바닥을 차고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것과도 비슷한 경우이다. 우리가 큰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큰 절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Eliot는 이 시에서 그가 겪은 큰 절망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그가 구원에 대한 큰 희망을 갖게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시는 파라독스(역설)의 시이며 또한 철저한 부정(negativity)에서 긍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시이다.

나는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래서 나는 기뻐한다. 기쁨의 토대가 될 무엇인가를 세워야 하겠다

Because I cannot hope to turn again  
Consequently I rejoice, having to construct something  
Upon which to rejoice (CPP, 89).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상태는 아직도 철저한 절망의 상태는 아니다. Eliot는 아직도 자기 힘으로 <기쁨의 토대가 될 무엇인가를 세워야 하겠다>고 말한다. 비록 그가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는 아직도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한 기대(hope)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이 아무 값어치가 없는 존재임을 느껴 깨닫는다.

주여, 저는 아무 값어치가 없나이다

주여, 저는 아무 값어치가 없나이다  
그러나 다만 한 말씀만 하소서.

Lord, I am not worthy  
Lord, I am not worthy  
but speak the word only. (CPP, 93)

이처럼 자신의 무가치를 절실히 알게 된 Eliot는 지금까지 그가 가졌던 지적 오만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지성의 한계를 알게 된다. 이러한 부정(否定)의 길을 통하여 그는 신을 보게 되고, 그에게 의지하게 되며, 또한 그에게 기도드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 주시기를 신에게 기도하고  
내 자신과 더불어 너무 많이 토론하고  
너무 많이 설명한 것들을  
스스로 잊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And [I] pray to God to have mercy upon us  
And I pray that I may forget  
These matters that with myself I too much discuss  
Too much explain (CPP, 89)

이것이 그가 자신의 무가치를 느끼고 나서 처음으로 기도한 내용이다. <토론>하고 <설명>하는 것——이것은 지성의 작용이지만, 이러한 지성은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결론에 이르는 선적(線的, linear)인 발전일 뿐, 신앙의 도약(leap of faith)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Eliot는 그가 <토론>하고 <설명>한 이런 저런 많은 것들을 잊고, 오직 신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도한다 pray>는 말을 두번 씌으로써 자신의 기도가 간절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또한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우리 us>에게 자비를 내려 주도록 기도함으로써, <나>라는 좁은 의식에 갇혀 있던 의미의 공간이 넓혀짐을 본다. 그는 신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의 간절한 염원을 표시한다.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빌으소서.

Pray for us sinners now and at the hour of our death  
Pary for us now and at the hour of our death. (CPP, 90)

이 시키는 성모경(聖母經)의 마지막 부분에서 따온 것이다. 성모경을 자신의 시키로 씌으로써, Eliot는 자신이 성공회 신자임을 보여 줬을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 또한 몇 가지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첫째로 이 구절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기독교

의 죄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죄의 개념은 원죄(original sin)의 개념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바, 이는 곧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정한 것이다. 즉, 원죄란 인류 최초의 남녀인 아담(Adam)과 이브(Eve)가 신과의 계약을 깨트려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는 곧 인간의 지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독교에서의 믿음이다.

두번째로는 <시간은 언제나 시간 time is always time>, 이런 그저 물리적이고 개별적인 시간이 신의 섭리 속에서 <이제와 우리 죽을 때 now and at the hour of our death>라는 하나의 <질서>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 <시간은 언제나 시간>일수 없으며, 시간은 <이제와 우리 죽을 때>라는 신의 질서 속에서의 시간이 됐다. 더구나 <hour>와 <our>의 발음이 같기 때문에, <at the hour of our death>에서는 곧 <시간 hour>을 두번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신의 시간의 질서는 Eliot에 의하여 강조되고 있다. 시간은 이제 신의 질서 속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이제는 <잃어버린 시간 lost time>을 신의 질서 속에서 찾을 수도 있다.

되찾아라

시간을 되찾아라.

더 높은 꿈 속에 파묻힌 아적도 해독되지 않은 [신비의] 빛을

Redeem

The time, Redeem

The unread vision in the higher dream (CPP, 94)

이제 잃어버린 시간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고,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이는 신이 인간을 <구원 redeem>하듯이, 우리도 신의 질서 속에 있는 <시간을 되찾는다 Redeem the time>. 이러한 Eliot의 강한 기도는 또 한번 발해진다. 그러나 그가 두번째로 <시간을 되찾아라 Redeem the time>라고 할 때에는 이제는 단순히 <시간>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신의 질서 뒤에 전제되어 있는 <들리지 않은 말 the unheard word>을 찾는 것으로까지 진전된다. 사실상 <시간>은 <말> 없이 찾아질 수 없으며, <말>은 <시간> 없이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신>의 말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되찾아라, 꿈을 되찾아라

들리지 않고, 말해지지 않은 말의 징조를 되찾아라

Redeem the time, redeem the dream

The token of the word unheard, unspoken (CPP, 95)

여기에 나오는 시간, 꿈,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진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고 신의 질서 속에 있는 시간, 꿈, 말이다. 더구나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신의 질서가 되는 것은 말이다. 왜냐하면 말(신의 말씀)이 상실됐을 때, 시간과 꿈(낙원의 꿈)이 자동적으로 상실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 Word>을 찾는 일이 곧 이 모두를 찾는 일이 된다.

만약 잃어버린 말이 잃어버려지고, 허비된 말이 허비되고,  
 만약 들리지 않고, 말해지지 않은 말이  
 말해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해도,  
 말해지지 않은 말, 들리지 않는 <말씀>은 여전히 있다.  
 말이 없는 <말씀>, 이 세상 안에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말씀>이 있다.

If the lost word is lost, if the spent word is spent  
 If the unheard, unspoken  
 Word is unspoken, unheard;  
 Still is the unspoken word, the Word unheard,  
 The Word without a word, the Word within  
 The world and for the world. (CPP, 96)

이처럼 신의 <말씀>은 잃어버린 말, 말해지지 않은 말, 들리지 않는 말 등——모든 말에 질서를 주어 이들을 자리매김하여 가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변화는 <빛 light>과 함께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칠흑같이 캄캄하던 영혼,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의식에게 한 줄기의 빛이 비친다.

그리고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그리고  
 <말씀>에 거역하면서 잠잠하지 않은 세상이 소용돌이쳤다.  
 침묵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And the light shone in darkness and  
 Against the Word the unstilled world still whirled  
 About the centre of the silent Word. (CPP, 96)

이제 드디어 한 줄기의 빛이 어둠을 비추고, 세상은 이 빛의 근원인 <말씀>을 중심으로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

빛을 발하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그는 신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 하나의 여인이다. 그녀는 빛나는 하얀 옷을 입고 있다.

성녀(聖女)는 흰 옷을 입고  
 물러가 생각에 잠긴다, 흰 옷을 입고.  
 뼈의 흰 빛이 망각(忘却)에의 속죄(贖罪)가 되게 하소서.

The Lady is withdrawn  
 In a white gown, to contemplation in a white gown.  
 Let the whiteness of bones atone to forgetfulness. (CPP, 91)

여기에 나오는 뼈들은 시간 속에 잃어서 버려졌던 뼈들이다. 신까지도 <이 뼈들이 살겠는가 Shall these bone live?> (CPP, 91)라고 자문하던 그런 뼈들이다. 다행히도 이 뼈들은 흰 빛깔이어서, 빛이 비치자 빛을 반사하며 흰 빛을 낸다. 이제 이 뼈들도 신이 질서지워

준 시간 속에서 망각을 벗어던지고 빛을 발한다. 어찌 죽은 때뿐이겠는가? 이제 살아 있는 우리도 성녀의 덕분으로 빛을 발한다.

이 성녀의 자비로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그녀가 묵상(默想) 중에 성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란히 빛난다.

Because of the goodness of this Lady  
And because of her loveliness, and because  
She honours the Virgin in meditation,  
We shine with brightness. (CPP, 91)

이제 우리는 <너>와 <나>로 따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모두 <우리>가 된 셈이다. 우리는 모두 빛을 낸다. 우리는 서로 서로의 끊을 수 없는 끈에 매여 하나가 된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 시의 맨처음에 나타난 <그렇기 때문에 Because>라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lthough>라는 신의 섭리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성회 수요일>의 첫번째 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나는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바라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Because I do not hope to turn again  
Because I do not hope  
Because I do not hope to turn (CPP, 89)

이 구절은 구이도 카발칸티(Guido Cavalcanti)(1255~1300)가 사라짜(Saranza)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자기의 부인을 다시 볼 희망도 없고 죽음만을 생각하는 참담한 상태에서 쓴 시의 한 구절을 번역한 것이다.<sup>29)</sup> 이 인용으로 미루어 보아 Eliot는 이 시를 참담한 정신상태에서 시작한다. 그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무런 신앙이 없다. 신앙이란 <때문에>를 <임에도 불구하고>로 바꾸어 놓는 신의 사랑을 믿음이다. <성회 수요일>의 마지막 부분은 <...임에도 불구하고>로 시작된다. 그 사이 Eliot는 신앙을 찾은 셈이다.

나는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지 않지만  
바라지 않지만  
돌이키기를 바라지 않지만

29) B.C. Southam, *A Student's Guide to the Selected Poems of T.S. Eliot* (London, Faber and Faber, 1968), p.129.

Although I do not hope to turn again  
 Although I do not hope  
 Although I do not hope to turn (CPP, 98)

이처럼 Eliot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 Eliot의 신앙은 이 시를 다음과 같은 기도로 끝맺는다.

축복받은 자매여, 거룩한 어머니여, 샘의 영(靈)이여, 동산의 영이여,  
 기적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게 하시고  
 근심하고 또한 근심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 바위들 사이에서나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 속에 우리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이 바위들 사이에서나마  
 자매시여, 어머니시여,  
 강의 영이시여, 바다의 영이시여,  
 나를 내치지 마소서

Blessèd sister, holy mother, spirit of the fountain, spirit of the garden,  
 Suffer us not to mock ourselves with falsehood  
 Teach us to care and not to care  
 Teach us to sit still  
 Even among these rocks,  
 Our peace in His will  
 And even among these rocks  
 Sister, mother  
 And spirit of the river, spirit of the sea,  
 Suffer us not to be separated (CPP, 98-99)

여기에 나타나는 여성은 생명과 운동의 이미지리를 통하여 우주와 신비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샘과 강과 바다는 넘쳐나는 생명력과 우주의 흐름을 보여 주고, 동산은 많은 식물이 자라는 곳이다. 이러한 생명과 우주적인 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마르고 단단한 바위들 틈에서도 신의 뜻 속에 살며, 주의 평화를 바라게 된다.

이 시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이 시에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찾기까지의 과정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Eliot는 이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 교리만을 원용하지 않고, 그가 인도 및 불교에서 받은 영향까지를 포괄하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의 시인으로서의 포용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이점은 그가 편협한 종교 시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의 후기 시인 『네 사중주 *Four Quartets*』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

Eliot가 죽던 달인 1965년 1월 12일자 런던의 『더 타임즈 *The Times*』에 실린 K. Haza-

reensing의 기고에서, Hazareensing은 그와 Eliot가 가진 대화에서 Eliot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쓰고 있다.

[Eliot는] <성회 수요일>을 쓸 때 그가 인도 철학의 어떤 면에 알게 모르게 영향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Eliot] wondered if, in writing "Ash-Wednesday," he had not been unconsciously influenced by some aspect of Indian philosophy<sup>30)</sup>

Eliot는 1912~1913년에 Charles Lanman 교수 밑에서 Buddhagosh가 쓴 『정화의 길 *Way of Purification (Visuddhimagga)*』를 공부한 적이 있다.<sup>31)</sup> 이와 관련하여 <성회 수요일>의 세번째 시에 나오는 세 계단에 관한 이미지는 십자가의 성 요한 등과 같은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10단계가 아니고, 용수(龍樹, Nāgārjuna)와 Buddhagosh가 말하는 열반(*Nirvana*)에 이르는 세 계단과 매우 흡사하다. 이 세 단계를 보면, 첫째 단계는 귀의(歸依)와 지적 수련의 과정으로서, 이 단계는 <성회 수요일>에 나타나 있지 않다. 둘째 단계는 세속에 다시 와서 세속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셋째 단계는 영원한 존재로서의 <내>가 없음을 깨닫고, 도덕이나 종교의식에 집착하지, 앎으로써 자유로워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그러므로 육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단계이다. <성회 수요일>에 나와 있는 제 2 단계를 보기로 하자.

두번째 계단의 첫번째 굽이에서  
나는 돌이켜 밑을 보았다  
어슴푸레 안개 낀 탁한 공기 속에  
바로 그 모습이 난간에 매달려  
희망과 절망의 표정을 함께 지닌  
계단의 악마와 싸우고 있는 것을.

두번째 계단의 두번째 굽이에서  
엎치락 뒤치락 틀리고 꼬인 그들을 밑에 내버려 두었다.  
이제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계단은 캄캄했다.  
침흘리는 늙은이 입처럼 축축하고, 쭈굴 쭈굴해서, 손질할 길도 없고,  
늙은 상어의 이빨 내민 목구멍 같았다.

At the first turning of the second stair  
I turned and saw below  
The same shape twisted on the banister  
Under the vapour in the fetid air  
Struggling with the devil of the stairs who wears  
The deceitful face of hope and of despair.

30) *The Times* (London), Jan. 12, 1965, p. 11 (Hay, p. 93에서 재인용).

31) Hay, p. 93.



At the second turning of the second stair  
 I left them twisting, turning below;  
 There were no more faces and the stair was dark,  
 Damp, jagged, like an old man's mouth drivelling, beyond repair,  
 Or the toothed gullet of an aged shark. (CPP, 93)

이처럼 두번째 계단은 수행자가 이제껏 살던 세속의 삶을 보여준다. 거기에는 건잡을 수 없는 육체적인 욕망이 어슴푸레한, 탁한 공기 속에 보이는, 난간에 매달린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거기에서 보이는 기만에 수행자는 두려움과 더불어 혐오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번째 계단에서는 전원의 풍경이 펼쳐지고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곳이다. 수행자는 이 세번째 계단에서 열반의 상태를 보여준다.

세번째 계단의 첫번째 굽이에는  
 무화과 열매처럼 불룩한 흙 파진 창이 있었다  
 그리고 아가워나무 꽃피고 목장의 풍경 건너편엔  
 청록색 옷을 입은, 어깨가 딱 벌어진 사나이가  
 고풍(古風)의 피리를 불어 오월의 계절을 유혹하였다.  
 바람에 흩날려 입 위에까지 나뭇가리는 갈색 머리칼은 고왔다.  
 얇은 자주색과 갈색의 머리.

At the first turning of the third stair  
 Was a slotted window bellied like the fig's fruit  
 And beyond the hawthorn blossom and a pasture scene  
 The broadbacked figure drest in blue and green  
 Enchanted the May time with an antique flute.  
 Brown hair is sweet, brown hair over the mouth blown,  
 Lilac and brown hair. (CPP, 93)

여기에 묘사된 평화스러움이 다음 줄에서는 곧 잠념(distracton)으로 해서 흐트러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에로의 귀의를 보여주는 <성회 수요일>에 불교의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나타나 있다는 사실은 Eliot가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의 폭과 깊이를 보여준다. 더구나 이 시의 네번째 줄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과의 절연(renunciatio)과 아주 가깝다.

이 사람의 재질과 저 사람의 능력을 탐내어  
 나는 더 이상 이런 일에 공연히 애쓰지 않는다.

Desiring this man's gift and that man's scope  
 I no longer strive to strive towards such things (CPP, 89)

이는 곧 부처가 출가할 때 가족과 왕자의 지위를 끊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간다. 이에 대해 석가모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속의 모든 것과 절연한 사람의 삶은 공기처럼 자유스럽다.

free as the air is the life of him who has renounced all worldly things<sup>32)</sup>

이처럼 Eliot에게 있어서의 신비주의의 뿌리는 그가 성공회로 개종한 뒤에게까지도 포괄적인 면을 보여준다.

#### 7. 신의 뜻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의 행위로서의 Pattern—『대성당에서의 살인 Murder in the Cathedral』과 Eliot의 다른 희곡의 경우

Eliot의 시와 사상에 나타나는 주요한 관심사는 <시간을 되살리고, 꿈을 되살리는 것 Redeem the time, redeem the dream, (CPP, 95)이었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시간의 공간화인 그의 <객관적 상관물, objective correlative> 이론과 그의 역사의식을 반영한 전통 tradition을 살펴볼 때 이미 본 바가 있다. 그러나 Eliot는 그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단지 인간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보려는 데에 그의 주요 관심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성회 수요일>에 나타난 그의 기독교적인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이와 같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는 시간이 되살려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시간을 역사나 전통이라는 패턴 속에 묶음으로써 시간을 되살리고자 하는 시도나 또는 영원한 순간들 (eternal moments) 속에서 시간을 초월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모두 쓸데없는 몸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Eliot는 깨닫게 된다. 이러한 그의 깨달음은 특히 그의 후기 작품들인 『대성당에서의 살인』과 『네 사중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Eliot의 이러한 깨달음을 『대성당에서의 살인』과 그의 다른 희곡 작품에서 보기로 하자.

시간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신의 뜻에 의해서만 되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우리는 『대성당에서의 살인』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에서 Eliot는 인간의 역사는 신의 뜻에 의한 역사(history)이며, 이는 곧 신이 예수로 태어난 강림(降臨, Incarnation)의 역사이다. 이것이 바로 신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와 만나 이 둘이 하나가 된 것이다. 이는 시간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는 Eliot 자신이 시간에 대해서 깨달은 진실이기도 하다. 그는 지금까지 시간을 인간의 의지와 지성에 의해서 되살려 보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그의 시도가 여지없이 깨어진 것을 <팅빈 사람들>은 보여주었다. <성회 수요일>에서 그는 그의 실망을 털고 겸허하게 신의 뜻과 인간의 텅 빈 현실을 받아드리는 겸손을 보여 주었다. 『대성당에서의 살인』에서는 이러한 겸손이 토마스 베케트(Thomas Becket) 주교의 죽음에 의하여 행동으로 보여진다. 그는 그 가 쓴 희곡 중의 하나인 『바위 The Rock』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다음 미리 정해진 순간에, 시간 안에 있는 시간의 한 순간이 온다.

32) Fayek M. Ishak, *The Mystical Philosophy of T.S. Eliot* (New Haven, Conn., College and Univ. Press, 1978), p.103에서 재인용

[이것은] 시간 밖에 있는 순간이 아니고 시간 안에 있는 순간으로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사속에 있다. [이는] 시간의 세계를 가르치르고 시간의 세계를 갈라 놓는, 시간 속에 있지만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은 순간이다.

시간 속에 있는 순간이지만, 역사는 이 순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곳에는 시간이 없는데, 그 순간이 의미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Then came, at a predetermined moment, a moment in time and of time,

A moment not out of time, but in time, in what we call history: transecting, bisecting the world of time, a moment in time but not like a moment of time,

A moment in time but time was made through that moment: for without the meaning there is no time, and that moment of time gave the meaning. (CPP, 160)

여기에서 Eliot가 말하는 순간은 바로 신이 인간으로 태어난 시간이며, 이 순간으로 인하여 인간의 역사는 시작되고, 인간 역사에 의미가 부여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역사는 신의 역사에 인간의 시간이 합쳐진 것으로서, 이는 곧 인간과 신의 합작품으로서의 역사이다. Eliot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만 시간이 되찾아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지금까지 그는 신을 배제하고 시간을 되살려 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이다. 『네 사중주』의 처음 시인 <버너트 노오튼 Burnt Norton>의 처음은 Eliot가 지금까지 추구해 오던 신을 빼놓고 시간을 되살려보려던 노력이 헛수고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의 후기 작품들의 원숙성을 보여준다.

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은

아마 둘다가 미래의 시간 안에 있고,  
미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 속에 들어 있다.  
모든 시간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모든 시간은 되찾아질 수 없을 것이다.

Time present and time past

Are both perhaps present in time future

And time future contained in time past.

If all time is eternally present

All time is unredeemable. (CPP, 171)

Eliot의 이러한 진술은 그가 추구하려는 시간의 항구성이 신을 배제할 경우에 갖게 되는 모순을 보여준다. 그는 초기에는 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전통>과 <역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자 했다. 이럴 경우 위의 예문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시간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가설에는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나, 거기에는 신이 인간이 된 순간, 역사를 만드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시간은 되살려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이 인간이 된 순간을 Eliot가 찾았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획기적인 전기이며, 그의 신비주의의적 요소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 그는 이제 신이 의미를 부여

해 준 시간에 우리 자신을 내맡김으로써만 시간이 견져질 수 있다고 보게 된다.<sup>33)</sup> 이 경우 Eliot는 pattern이라는 특수한 용어를 써서 신의 뜻과 인간의 자발적인 의사가 합쳐져서 역사를 이룸을 보여준다. 이 경우 pattern이 의미하는 바는 신의 일방적인 뜻만도 아니고, 또한 신이 배제된 인간의 역사도 아니다. 신의 뜻이 시간 속에서 인간의 자발적인 행동에 의하여 역사를 만들 때 이것이 pattern이다. 인간은 곧 이러한 신과 인간의 합작인 pattern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시간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역사는 시간을 초월하는 순간들의 한 pattern이기 때문이다.

A people without history  
Is not redeemed from time, for history is a pattern  
Of timeless moments. (CPP, 197)

pattern은 신이 역사에 부여한 새로운 의미이며, 인간이 받아들인 시간 속에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비로소 역사의식(historical sense)가 생긴다. 여기에서 말하는 역사의식은 Eliot가 전에 <전통>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쓰던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전통>에서의 역사의식은 통시적인 역사(diachronic history)를 시간의 한 점에서 공시적인 역사(synchronic history)로서 영원히 고착시켜 놓으려는 시도였다. 물론 여기서는 신의 역할이 배제돼 있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쓰이는 역사는 다른 의미의 역사의식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의 역사의식은 시간의 매 순간마다 신이 함께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역사의식이다.<sup>34)</sup>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식에서 볼 때, 역사속에서는 인간과 신이 상호 역동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pattern은 언제나 새로울 수밖에 없다. 신의 시간은 현재, 과거, 미래가 영원히 존재하는 움직이지 않고 침체된 시간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의 능동적인 협조로 창조되는 역사의 시간으로서의 pattern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역사의 전개를 완전히 알 수 없다. 단지 신의 뜻을 믿고 이를 능동적으로 따라 행동할 따름이다. 신이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었다면, 신이 움직이는 역사 속에서의 pattern은 언제나 새롭고, 우리의 과거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해준다.

경험에서 나온 지식에는  
기껏해야 겨우 제한된 가치밖에 없는 듯하다.  
[이러한] 지식은 형(型)을 부과하고 [우리들] 속인다.  
왜냐하면 [신의] 형(型)은 순간순간마다 새롭고  
순간 순간은 모두 우리의 과거에 대한  
새롭고 놀라운 평화이기 때문이다.

33) Miller, p.187.

34) Miller, p.188.

There is, it seems to us,  
 At best, only a limited value  
 In the knowledge derived from experience.  
 The knowledge imposes a pattern, and falsifies,  
 For the pattern is new in every moment  
 And every moment is a new and shocking  
 Valuation of all we have been, (CPP, 179)

여기에서 Eliot는 pattern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다른 뜻을 보여준다. 하나는 신이 없는 상태에서의 경험에서 나온 pattern으로 이는 믿을 수가 없다. 신의 역사에서도 pattern은 항상 새로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pattern이 우리를 속여서가 아니라 이러한 pattern 뒤에 있는 신의 뜻이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역사를 신의 역사의식에서 보고, 그 속에 나타난 pattern에 자신을 맡기며, 순간순간을 신의 강생(Incarnation, 降生)의 역사 속에서 보는 인물이 『대성당에서의 살인』에 나오는 베케트 주교이다. 그가 1170년 성탄절 아침에 대성당에서 한 강론 중, 다음은 바로 그가 알고 있는 역사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순교관(殉教觀)을 잘 보여준다.

기독교의 순교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한 일로 성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지나 노력으로 지배자가 될 수 있지만, 기독교의 순교는 성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 의지의 결과로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는 야심으로써 강화되고, 거기에 사기와 감언과 폭력의 작용이 가해집니다. 결국 그것은 불순한 행동의 누적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자는 언제나 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은 인간을 수호하고 인간에게 길을 가르쳐 신의 길로 인간을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인간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순교자란 신의 뜻대로 되어버린 사람이므로, 그는 신의 의지 속에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맙니다. 아니 버린 것이 아니라 신의 의지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찾은 거지요. 왜냐하면 신에 복종함으로써 자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는 자기에 대하여 아무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순교의 영광마저도.

A Christian martyrdom is never an accident, for Saints are not made by accidents. Still less is a Christian martyrdom the effect of a man's will to become a Saint, as a man by willing and contriving may become a ruler of men. A martyrdom is always the design of God, for His love of men, to warn them and to lead them, to bring them back to His ways. It is never the design of man; for the true martyr is he who has become the instrument of God, who has lost his will in the will of God, and who no longer desires anything for himself, not even the glory of being a martyr. (CPP, 261)

이와같은 베케트의 순교에 대한 강론은 전날 밤에 그의 앞에 나타난 네 명의 유혹자——아마도 자신의 생각을 투영한 것으로 봐야 될 것이다——중에서, 네번째 유혹자의 유혹을 듣고 이를 성공적으로 물리친 후 그가 얻게 된 깨달음이다. 이 네번째 유혹자는 베케트가 어

렘콧이 느끼고 있기는 했지만, 꼬집어내지는 못했던 그의 욕망을 가지고 그를 유혹했기 때문이다. 이 유혹자는 다음과 같이 그를 유혹한다.

순교의 길을 찾으십시오. 천국에서 높아지기 위하여 지상에서는 몸을 가장 낮게 하십시오. 그리고 멀리 밑으로 심연(深淵)에 펼쳐져 있는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정열은 고갈되고, 속죄의 길은 아득한, 당신의 박해자들을 내려다 보십시오.

Seek the way of martyrdom, make yourself the lowest  
On earth, to be high in heaven.  
And see far off below you, where the gulf is.  
Your fixed, persecutors, in timeless torment,  
Parched passion, beyond expiation. (CPP, 255)

네번째 유혹자의 이같은 유혹은 바로 베케트 자신이 은근히 바라던 순교에의 유혹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유혹자의 감언이설에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갈망하던 바, 바로 그런 갈망으로 나를 유혹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다른 놈들은 왔으되,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놈들이었다.  
패락과 권력을 댓가로 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는 무엇을 주려는거냐? 무엇을 원하느냐?

Who are you, tempting with my own desires?  
Others have come, temporal tempters,  
With pleasure and power at palpable price.  
What do you offer? what do you ask? (CPP, 255)

이처럼 한편 놀라고 한편 두려운 마음으로 네번째 유혹자를 물리친 후 베케트는 마음의 평온을 찾고 나서 네번째의 유혹은 아주 큰 유혹이었음을 시인한다.

마지막 유혹은 가장 무서운 반역이었다.  
그릇된 이유로 옳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The last temptation is the greatest treason:  
To do the right deed for the wrong reason. (CPP, 258)

베케트는 그러나 순교는 신의 뜻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한 말에는 그의 이러한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이 놈들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이 놈들을 나는 일생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내게 죽을 가치가 있을 때에만 죽음이 온다.  
그리고 나의 목숨이 값진 것이라면, 두려움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내 뜻한 바를 관철할 뿐이다.

All my life they have been coming, these feet. All my life

I have waited. Death will come only when I am worthy,  
 And if I am worthy, there is no danger.  
 I have therefore only to make perfect my will. (CPP, 271)

이와 같은 베케트 주교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의 심정을 아주 잘 알 수 있다. 그는 이미 신의 pattern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그 자신은 언제나——일생동안——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준비는 운명론적인 준비라기보다 그 자신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능동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버리게 될 자신의 목숨은 값진 것이며, 또한 자신이 죽는데 대한 두려움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신의 pattern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신의 뜻이 인간의 역사가 되고, 또한 pattern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일 뿐이다.

Eliot는 『대성당에서의 살인』말고도 몇 편의 희곡을 더 썼다. 그러나 그는 그의 다른 희곡에서 베케트 주교의 순교와 같은 무거운 주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반면 그는 그의 다른 희곡에서는 성인이나 순교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적인 세상사를 살아가면서 신과 인간이 만드는 역사의 pattern을 만들어 가는가를 보여준다(물론 이 경우 『칵테일 파티 *The Cocktail Party*』에 나오는 켈리아 카플스톤(Celia Coplestone)은 예외적으로 보통 사람이라기 보다는 베케트 주교와 비슷한 유형의 인물에 속한다). 베케트 주교처럼 자신이 순교자가 되도록 결정된 신의 pattern을 알고, 이를 위해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또한 어떻게 보면 쉬운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순교자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법사에 노력하는 보통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도 순교자나 성인의 삶만큼이나 어렵고 좌절로 가득찬 삶일 수 있다. 이런 보통 사람들을 우리는 『칵테일 파티』, 『비서 *The Confidential Clerk*』, 그리고 『엘더 정치가 *The Elder Statesman*』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보통 사람들이 영위하는 대표적인 삶을 우리는 『비서』에 나오는 콜비 심프킨즈(Colby Simpkins)에게서 볼 수 있다.

클로드 멀레머경(Sir Claude Mulhammer)의 개인비서로 있는 에거슨(Eggerson)은 건강상의 이유로 비서직을 그만두게 되어 있다. 그의 후임으로 콜비가 내정돼 있다. 클로드경은 콜비를 자신의 사생아로 생각하여 그를 자신의 비서로 채용하고자 한다. 극이 진행되면서 콜비는 클로드경의 사생아가 아님이 판명된다. 콜비는 교회의 오르겐 연주자가 되는 게 소망이었다. 콜비는 자신이 클로드경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자 자신이 소원하던 시골 교회의 오르겐 연주자로 직업을 잡는다. 한편 클로드경도 예전에는 도예가(陶藝家)가 되는 게 꿈이었다. 금융가가 된 지금도 그는 예전의 꿈을 버리지 못하여, 자신의 집의 방 하나를 비워 아직도 그곳에서 도자기를 만든다. 그에게 있어 진짜 직업은 도예가이고, 금융은 부업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때, 콜비는 클로드경보다도 더욱 현명한 결정을 한 셈이다. 이처럼 이 극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자신의 소명(召命, vocation)

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소명은 콜비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베케트 주교의 순교만큼 그렇게 영웅적인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콜비의 경우도 베케트 주교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신의 의도를 알고, 이 pattern에 맞는 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곧 자신의 소명에 따르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자신의 길이기도 하다. 유명해지거나 일류가 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소명을 알고 그것을 위해 정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도 하다. 다음과 같은 콜비의 말은 이 모두를 집약한 것이다.

저는 오르겐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공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전에는 제 능력 이상으로 너무 높이 바라 적이 있었지요.

제가 일류가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시 말해서 대성당의 오르겐 연주자가 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오르겐 연주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저의 아버지도 일류 오르겐 연주자는 아니셨거든요.

I want to be an organist.

It doesn't matter about success——

I aimed too high before——beyond my capacity.

I thought I didn't want to be an organist

When I found I had no chance of getting to the top——

That is, to become the organist of a cathedral.

But my father was an unsuccessful organist. (CPP, 519)

신의 뜻을 인간의 뜻과 맞추어 하나의 pattern을 만드는 것——이것이 곧 보통 사람들의 구원이다. 더구나, 자기가 택한 일을 곧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실패나 성공과 같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역사를 신의 역사로 만드는 보통 사람들의 올바른 소명의식이며 구원관이기도 하다.

#### 8. 시간과 공간의 합일(合一)로서의 *Still Point*—『네 사중주 *Four Quartets*』의 경우

『네 사중주』는 Eliot의 시의 대단원이기도 하려니와 또한 그의 신비주의의 극치이기도 하다. 네 편의 시로 돼 있는 이 장시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의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돼 있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 요소들이 지양(止揚)되고 확충돼 있다.

『네 사중주』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시간이다. 시간은 Eliot의 초기 시에서부터 집요하게 나타나는 심상(心像)으로서, 여기서는 지금까지 Eliot의 시에 나타난 심상을 집약하고 종합한다. 여기에 나타난 시간은 직선적인 진전으로서의 시간이 아니고,<sup>35)</sup> 응축된 통합체로서의 시간으로서, 열려지고 동시에 모아진 시간이다. 『네 사중주』의 첫 시

35) Harry Blamires, *Word Unheard: A Guide through Eliot's Four Quartets* (London: Methuen, 1969), p.7.



인 〈버너트 노오튼 Burnt Norton〉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된다.

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은  
아마 모두 미래의 시간 안에 있고,  
미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다.

Time present and time past  
Are both perhaps present in time future  
And time future contained in time past. (CPP, 171)

이처럼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두가 모아져 있고 합쳐져 있는 통합체로서의 시간이기 때문에, 직선적인 진전이 아니고 원의 순환운동을 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을 말할 때는 앞의 시간인 과거가 있고 뒤의 시간인 현재와 미래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네 사중주』에는 이러한 시간의 전후개념이 소멸된다. 이것은 바로 예언자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시간관(時間觀)으로서, 신비주의적인 시간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간관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같이 있게 된다.

나의 시작에 나의 끝이 있다.  
In my beginning is my end. (CPP, 177)

이러한 열려진 시간은 우리의 구원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죽음을 미리 보여 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처음에 우리의 끝이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죽음의 씨가 뿌려졌다는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다.<sup>36)</sup>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 뿌려진 죽음과 멸망의 씨앗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 들이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는 시간이 정복되면 자연히 소멸될 수 밖에 없는 사실로서, 시간은 인간의 역사속에 나타나 인간의 역사를 신의 역사의 pattern으로 만든 예수의 강생(降生, Incarnation)으로 소멸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에 있던 죽음의 씨앗은 예수의 강생으로 인하여 생명의 씨앗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이러한 생명의 씨앗은 시간의 원의 순환 운동에 의하여 영원히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네 사중주』는 기독교적인 신비주의에 의한 시간의 정복과 구원을 보여준다. 예수의 강생은 그러므로 시간을 시간에 의하여 극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축이 된다.<sup>37)</sup> 성인(聖人)만이 시간과 영원의 교차, 즉, 예수의 강생으로 인하여 무의미한 시간이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영원과  
시간의 교차점을 아는 것은  
성인(聖人)의 직무이다.

36) Peter Milward, *A Commentary on T.S. Eliot's Four Quartets* (Tokyo, Hokuseido, 1968), p. 73.

37) F.O. Matthiessen, *The Achievement of T.S. Eliot* (N.Y.: Oxford Univ. Press, 1959), p. 187.

But to apprehend  
 The point of intersection of the timeless  
 With time, is an occupation for the saint— (CPP, 189—190)

그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예수의 강생에 의해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그것이 예수의 강생에 의해서만 시간이 시간에 의해서 극복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안다.

어렴풋이 느껴지는 힌트, 알듯 말듯한 은혜가 예수의 강생이다.  
 여기[강생]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불가능할 것 같던 결합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과거와 미래는  
 극복되고 화합된다.

The hint half guessed, the gift half understood, is Incarnation,  
 Here the impossible union  
 Of spheres of existence is actual,  
 Here the past and future  
 Are conquered and reconciled. (CPP, 190)

시간은 시간에 의해서만 극복되고 화합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공간과 합쳐진다. 이것이 바로 항시적(恒時的)인 영원이 단편적이고 제한된 시간과 만나는 것이고, 움직임(動)이 부동(不動)과 만나는 still point이다. 이러한 신비스러운 상태를 Eliot는 중국 자기(磁器)의 비유를 들어 보여 주고 있다.

다만 전형(典型)과 패턴에 의해서만  
 말이나 음악은 고요에 이른다.  
 마치 중국 자기가 항시  
 고요 속에서 영원히 움직임과 같다.  
 곡조가 계속되는 동안의 바이올린의 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있음,  
 아니 끝이 시작에 앞서고,  
 시작의 전과 끝의 뒤엔,  
 끝과 시작이 언제나 거기 있었다고 말할까.  
 그리고 모든 것은 항상 현재다.

Only by the form, the pattern,  
 Can words or music reach  
 The stillness, as a Chinese jar still  
 Moves perpetually in its stillness.  
 Not the stillness of the violin, while the note lasts,  
 Not that only, but the co-existence,  
 Or say that the end precedes the beginning,  
 And the end and the beginning were always there